

한인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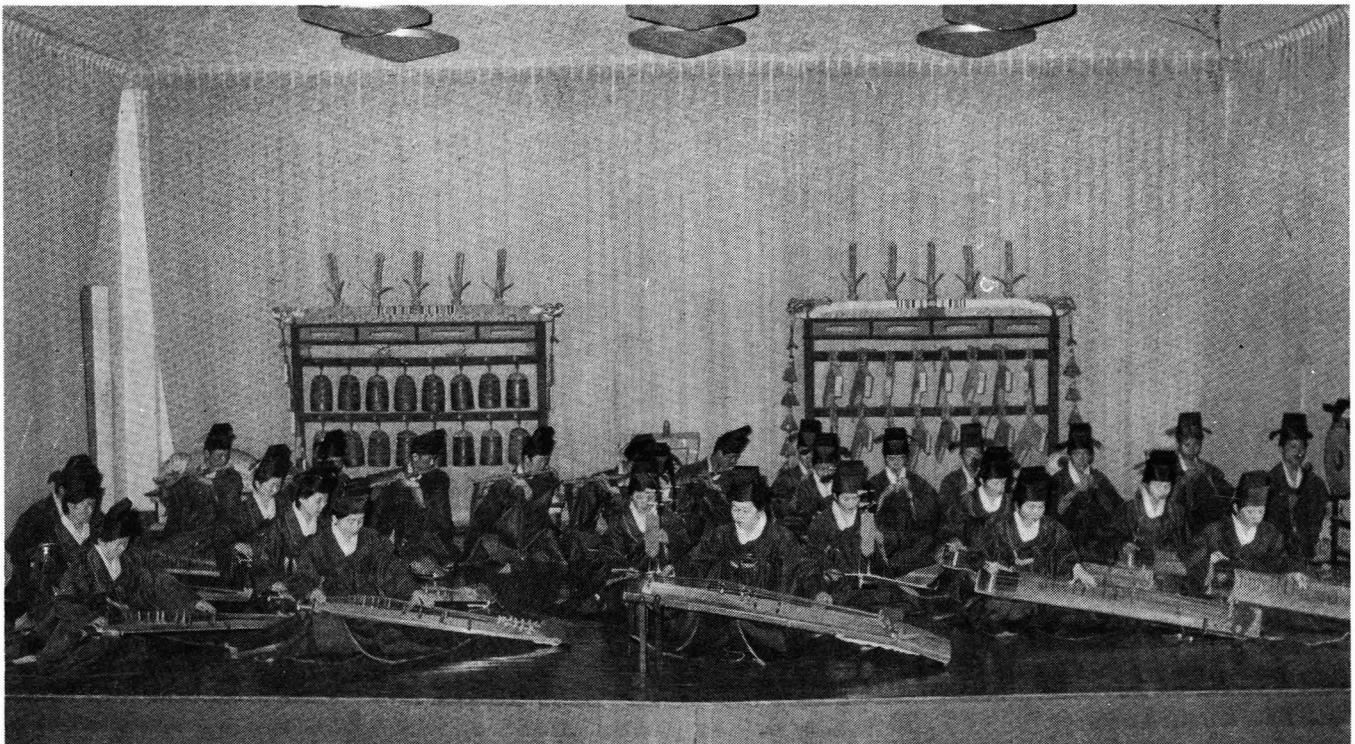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Chol Sik Chong, Publisher
Shin J. Koh, Editor
Phone: 767-7934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Vol. 9 No. 9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October 1980



구독신청 및 광고 문의



EAST-WEST TRAVEL SERVICE



IATA-ATC 공인

동 서 여행사

(206) 623-2157 낮
623-2158 밤
367-1935 밤

— 영 업 안 내 —

- * 국내 및 국제 항공권 판매
- * 국내외 관광안내
- * 항공권 월부판매 알선
- * 각종 여행수속 무료 서비스
- * 이민수속 및 가족초청 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시민권 취득 신청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공증업무 무료 서비스

※ 국내 및 국제 항공권 매입을 전화로 하시면 비행기표를 귀दै으로 전해드리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대표 이 영 호



제 1 회 한국 가곡의 밤

"한국 가곡의 밤을 개최하면서"

우리나라의 서양음악이 들어온지 80년 밖에 되지 않는다. 구 한말 군악대의 조직과 서양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음악활동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정상을 달리는 젊은 음악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모든 사람들은 경이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민족이 수천년을 내력오면서 음악을 사랑하며 좋아하여 음악이 생활화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것이다.

농촌에서 모내면서 모내기타령, 타작때는 타작노래, 길쌈하면서 벼를 노래, 방아찌면서 방아타령, 등등 많은 노래들이 생활속에서 흥겨우고 구성진 노래가락이 흘러넘친다.

이러한 전통속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음악만큼은 바른장택에 문화인을 자처하는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의미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음악인들이 모여서 음악 활동을 통하여 국민생활에 활력을 불어주고 미국사회에 음악을 사랑하는 전통있는 문화인의 긍지를 보이고 또한 장래성이 있는 후진들을 이끌어 주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음악인 동우회에서는 한국

가곡의 밤을 개최하여 우리 이민생활에 고달프고 어둠속에서 이즈러진 마음을 향토색 짙은 주옥같은 가곡의향연을 통하여 잠시나마 망향의 시름을 달래 보고자 한국 가곡의 밤을 마련케 되었습니다.

고민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일시 : 1980년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

주최 : 와싱턴주 한인 음악인 동우회
후원 :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

와싱턴주 학생회, 중앙일보, 한국일보.

공 고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 회칙제 2 장 제 19 조 1 항에의하여 1980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 일시 : 1980년 11월 15일 (토) 오후 7시
장소 : Boren Junior High School 강당
5950 DELRIDGE WAY. S.W. SEATTLE
- 안건 : 1) 1981년도 회장단 및 이사 선거
2) 80년도 사업. 재정보고
3) 기바 사항

1980년 10월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 회장 정철식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SERVICE (GAS) STATION

23843 PACIFIC HIGHWAY SOUTH
 KENT, WASHINGTON 98031
 TEL: (206) 878-7500
 (Across the Midway Drive-In)

**미드웨이
 야외극장
 스왈밧
 전너편**

- ** 자동차 정비 일체
 - * Tune-Up * Brake * Electric * Engine Overhall
 - ** TIRES ** BATTERIES
 - ** 도요다 닛산 혼다 등 외국차 전문
 - 2월 부터 새로운 Service로 시작한 저희 Station을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성심껏, 풍부한 경험의 기술진으로 책임수리 하고 있습니다.
- 김 명 환**

영 화 랑 | 각종 포구 전문 (자수, 서예, 동양화, 서양화 액자)
 | 골동품 전문 (Antique)
 | 초상화 주문

연락처 BUS 625 - 0872 (09:00 - 5:30 (±) 2:30)
 RES 767 - 5825
 주소 2034 2nd AVE 98121 (다운타운)

한국어를 제 2 외국어로 지정

타코마 교육청은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지정 이번 가을학기부터 1개 중학교와 1개 고등학교에서 정식학점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지정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타코마 교육청은 이제까지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서양말만 제 2 외국어로 인정해왔다. 씨애플에도 이중언어 교육이 있지만 한국어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로 타코마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이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글 공부에 대한 의욕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용 두 학교에서 36명의 한국 학생들이 한글 제2외국어반에 등록하여수업을 받고 있다.

이중 15명은 설자 와닉 교사가 가르치는 베이커 중학교에, 21명은 마운트 타코마 고등학교의 황의경 교사반에 등록했다.

타코마는 현재 박송자, 옥순 월순, 황정자 황의경, 설자 와닉 5명의 한국인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 정수동씨가 10월 18일 노스에 나이트 클럽을 개업했다. 정씨는 L.A영빈관, 씨애플에서는 아리랑동에서 전자올개를 연주해 왔으며 한국노태로 손님들을 맞았다고 한다. 전화 525-7303

개천절 기념 리셉션

개천절 기념 씨애플 총영사관 주최 리셉션이 10월 3일 와싱턴 플라자 호텔 볼룸에서 5백여명의 내빈과 고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내빈중에는 마이크 파커 타코마시장, 씨애플 지역 해군 기지 사령관 윌리엄 윌리엄스 소장, 해안 경비대장 찰스 타킨 소장, 텍이니어 뱅크 총재, 독일, 캐나다, 일본, 필리핀 총영사들이 참석했다.

한인회 납부를 바랍니다

씨애플-와싱턴주 한인회는 한인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회보발간, 사무실 운영, 기탁 등 여러분의 보내주시는 회비와 기부금으로 오늘날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 \$ 15.00.이고 한세대는 \$ 15.00입니다.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수표들이 이용하여 주시고 "회비" 혹은 기부금 이라고 명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고 환영

한인 회보는 약 1,500부 발송되고 있습니다. 고포들께서 보내 주시는 정성스런 원고는 성의껏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5일 까지 한인회 사서함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고포사회에 유익한 생활 정보나 문예작품, 논설, 기탁등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증권투자에 대한상식

최경수(Bache co.)

투자방법에는 금융투자, 소모품투자, 금
투자, 증권투자등 여러방법이있다.

그중에서도 우선 증권투자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첫째 틱스후 리인캡에 관하여
설명하겠다.

법적으로 승인된 세금 안내고 쓸수 있
있는 수입방법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점적인 안정을 원
하고있으나 수입이 많아지면 거기에 딱
오는 수입회금 문제가 생기고있다.

즉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세금액이
많어져서 본인이 수입된 금액은 적게쓸
수 밖에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많이 버는나가 안
이고 수입세금 낸 다음에 본인에게 남는
금액이 얼마만 되나가 중요한것이다.

그래서 싸수 있는 수입 즉 세금 면제증권을
알아볼 필요가있다.

세금 면제증권이란

각주, 시청,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세금 면
제증권, 예를 들자면 학교, 병원, 다리의
건설, 전기건설, 수도건설등을 위해 발행
한 증권은 정부 기관에서 법적으로 전체금
액을 일정한 기한내로 돌려주 게 보장되어
있으며 특히 안전한 투자방법이다.

그것은 매월 나오는 이자는 법적으로 100%
수입세금에서 면제가 되고있다.

왜냐하면 정부 각주 혹은 각시에서 투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빌려쓰고 있는 돈
이므로 여기서 나오는 이자는 면세시키고
있는것입니다.

보통은행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수입
세금을 내야되지만 세금 면제증권은 이
자 수입액을 법적으로 수입으로 보고 안
하게 되어있으니 꼭 유리한 투자방법이다.

어디서 면세증권을 살수 있나

여러가지 면세증권이 있기때문에 개인
별로 결정을 지어야한다.

각 증권마다 기한이 여러가지 있고 얼마
나 기한을 오랫동안 투자하는나가 우선

결정 되어야하고 어느 지역외것 예를들면
와싱톤주에서 발행한증권이나 일리노이주
에서발행한 증권을 사느냐로 결정하여야
이자율이 지역과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가 있어서 각 증권의 상담을 전문가에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

" 세군 안내는 수입과 세금 내는 수입
의 비교 "

예를들어 수입세금을 44% 내는 사람이
무 세금 수입으로 9% 받는것을 세금 내는
수입을 획득할려면 보통은행예금 이자로
16.08% 받아야만이 세금 내고 나서 무
세금 수입의 9%와 같아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은행에서 예금 이자 16.08
%를 받지못할 경우에는 이 무 세금 수입
증권이 꼭 유리한 것입니다. 10 페이지계속→

Auto Body 및 페인트 전문

20년의 자동차 정비 취급경력을 살려서 완전 무결하게

정비 봉사코자 하오니 상담해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정순영 드림

◆ 본 바디샐은 다음 종류의 차들을 수리합니다.

●미국내차 DOMESTIC

●외국차 FOREIGN

▲ALL FORD 및 CONTINENTAL

▲ALL VOLKS WAGEN

▲ALL CHEVROLET 및 CADILLAC

▲ALL DATSUN 및 TOYOTA

▲ALL CHRYSLER

▲ALL MAZDA 및 AUDI 외 모든 외국산차

▲ALL AMERICAN MOTORS

●FRAME MACHINE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FULL PAINTING)

●타이야

●스피드 바란스

◆ 무료견적

◆ 모든 보험 취급

전화 767-4808

집 243-6682

주소: 9815 17th S.W
Seattle W.A. 98106

Southside Automotive

증권 투자 상담

교포 여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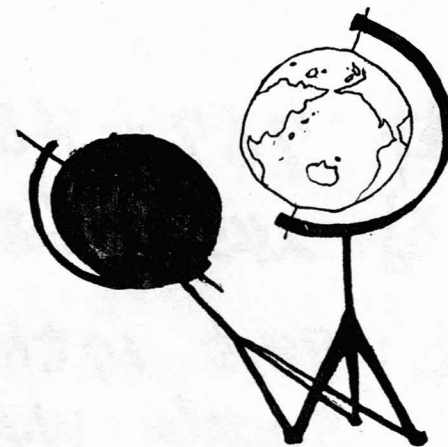
증권 . 금 . 스탁옵션 . 부동산 및 원유개발 . 간접투자 고리금융 시장 . 예금장등 제반투자 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 (Bache) 에서 10년간 일하고 있는 **최 경수** 에게 미국 어느 곳에서나 코렉트 콜 (Collect Call) 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Seattle (206) 223 - 2558

- STOCK
- BONDS
- TAX SHELTER INVESTMENTS
- REAL ESTATE INVESTMENTS
- COMMODITIES
- MUTUAL FUNDS
- OPTIONS
- GOLD

MEMBER OF NEW YORK STOCK EXCHANGE
AMERICAN STOCK EXCHANGE
PACIFIC STOCK EXCHANGE

Ken Chai
Account Executive
Bache Halsey Stuart Shields, Inc.
Peoples National Bank Bldg.
1415 5th Ave.
Seattle, Wn. 98171



Ba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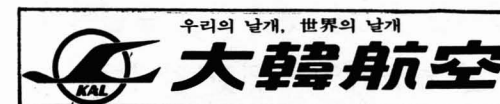
The winning attitude at Bache. Put it to work for you.

80년도 장학생 모집

고 이창희선생 기념장학회(회장 서두수 박사) 는 80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현 대학교 재학생으로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명 전공과목 보조가 필요한 이유 간단한 이력서등을 첨부 12월 15일까지 신청 하면된다. 장학생 선발은 3명으로 1인당 500달러씩 지급된다고 한다. 동 장학회는 지난해 미망인 김간난어사의 뜻 에따라 설립 이번으로 2번째 장학생 선발을 하고있다. 신청은 2728 N.E. 100 STRET 전화 525-0516 (씨애틀 한인장로교회 총무)

" 김 동 협 목사 독립유공자 포창 "

김동협목사 (한인복음교회 담임목사) 가 독립유공자로 대통령 포창을 받았다. 김목사는 1924년 고향인 평남 순천에서 순국회를 조직하는데 가담 총무직을 맡아 충남 및 중국정부와의 연락업무를 담당 독립운동을 벌여 령양지방법원에 투옥되었다. 그후 해방과 함께 석방하셨다. 김목사의 포창은 광복절날 포창대상으로 결정된것을 9월 15일 장운걸 총영사가 대리하여 전달했다.



남산의 서울 타워 공개

남산의 서울 타워가 준공된지 6년만에 처음으로 10월 15일 일반에게 공개됐다. 서울의 새 명물로 등장한 남산타워는 해발 479.9미터로 동양최고의 전망대이며 960명을 동시에 수용할수있고 24인용 고속능 엘리베이터 2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 컴 푸 - 터 주 소 록 "

본 한인회에서는 한인회보를 매월 정확히 우송 하기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1 년도 회원주소록을 보다 정확히 출판 하기위해 회원 여러분의 도움을 바라고 있으며 주소가 변경 혹은 한인회보를 못받아 보신 분께서는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스 썬서티브 메일링 레이블 (PRESS SENSITIVE MAILING LABEL) 에다 구역별 (ZIP CODE) 순서 혹은 알파벳 순서로 찍어 낼수 있습니다. 이 주소록이 필요하신분은 한인회 (767-7934) 나 김동호 박사 (S/OIC 근무 : 775-1682 오전, 223-2828 오후)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테니스協會 교민친선 정구대회

와싱턴주 테니스협회는 11월 1 일 2000 EMPIREWAY S. 에 있는 테니스센터에서 교민친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학생이 회장당선

타코마 편입 국민학교 6학년 계효준군이 10월 7일 이학교의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효준군은 5백명 전교생의 투표에서 다른 4명의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다른 4명의 후보들이 38 표에서 69 표를 얻은 데 비해 계군은 1백 89 표나 얻었다. 계군은 "선거운동을 잘하고 연설도 잘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효준군은 2년9개월 전 이민오기까지 수유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줄곧 학교에서 1,2등을 하고 반장을 했다고 아버지 계석희씨가 전했다.

계군은 이곳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특히 사회과목과 영어스펠링을 잘해 "수재반"에 추천을 받았다고 한다.

계효준군은 우리나라말도 유창하게 구사하며 한문도 3백 50자나 익혔는데, 그 이유는 부모들이 집에서는 한국말만 하게하고 우리나라 소년잡지들을 열심히 보기 때문이라 한다.

계효준군은 장차 법관이 되겠다고 했다.

● 배관공 사업을 하고 있는 전영환씨는 한인회관을 건립할 경우 배관공사비 일체를 부담하겠다고 씨애플-와싱턴주 한인회장(회장 정철식)에게 통보했다. 전씨는 또한 한인회가 헌집을 구입할 경우 배관문제 일체를 책임지고 수리하겠다고 함.

● 고민 조준범씨가 델리지 가든을 인수하여 10월 25일부터 신장개업했다. 취급품목은 정원수 화분등이며 특히 고민고객에게는 특별업가로 봉사하겠다고 한다. 델리지 가든의 전화는 937-5739

● 고민 이상진씨가 최근 부동산소 개업 브로커 자격을 획득 타코마에서 동서부동산회사를 설립했다. 사무실은 타코마 몰쏘핑센터의 오피스 빌딩 513호 전화 473-4642

6 페이지 계속

"무세금 수입증권이 유리한 점"

- 1) 무세금 수입
- 2) 일정한 시일에 전금액 지불
- 3) 안정성이 있다
- 4) 언제나 돈을 찾을 수 있다

더이상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증권회사에서 성의껏 상담하여 드릴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1~4 順位 모두 開放

11월 永住權번호 5 順位는 前月보다 2週풀리고 就業移民 6 順位도 1年1個月 앞당겨져

80년11월의 영주권쿼터는 1순위까지 개방되고 5순위는 전달에 비해 2주가 풀렸다. 작년 8월 이후 잠정적으로 폐쇄됐다가 지난달 77년7월1일 이전으로 풀리기 시작했던 6월순위는 1년1개월 이상이 앞당겨져 78년 8월15일 이전에 페미션을 낸 사람에게 번호가 개방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15일 국무성이 발표한 11월의 영주권문제 따르면 지금까지 하위순위로 묶여있던 취업이민 케이스 가현저히 호전 될 전망이어서 노동허가를 받고서도 쿼터에 묶여 신청을 못했던 사람들이 구제받을 것 같다. 77년1월1일 실시된 이민법 개정안(조항 202조)에 의거, 전년도 회계년도에 상위순위만 배정되고 하위순위가 배정안되었을 경우 다음회계 년도에 가서 하위순위를 우선적으로

으로 배정한다는 법의 적용이 실현된것. 80-81년 회계년도인 내년 9월까지 이후세가 계속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11월의 순위별 영주권쿼터는 다음과 같다.

- ▲1순위 (시민의 미혼자녀) - 개방.
- ▲2순위 (영주권자에 배우자 및 미혼자녀) - 개방.
- ▲3순위 (전문직종사자, 과학자, 예술특기자) - 개방.
- ▲4순위 (시민의 기혼자녀) - 개방.
- ▲5순위 (시민의 형제자매) - 78년7월22일 이전에 페미션을 접수한 사람에게만 개방.
- ▲6순위 (취업이민) 78년8월15일 이전에 페미션을 접수한 사람에게만 개방.
- ▲무순위 (투자이민) - 폐쇄.



" 자연 "

김종연 박사 (씨애플 한인 연합
감리교회 담임 목사)

말씀드린대로 저의 집 바로 뒤에는 많은 나무들이
육여져 있습니다. 집이 있기 전에는 그곳이 숲이
육여진 산이 었다고 합니다.

저는 자연을 좋아한 나머지 고요한 산속에 거처를
정한 것입니다. 공기가 맑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무 가지에 깃들여 지저귀는 새 소리는
아름답습니다. 특히 새벽에 우는 소리는 더 아름답
습니다. 이 소리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며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자기를 아는 친구에게만 하는 것도 아닙
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는 자연 그대로의 노래
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꾸밈이란 없습니다.

가감없이 창조받은 대로 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 아름다운을 아름답게 " 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 아름다운을 아름답게 " 산
사람을 본다면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찾아봅니다. "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 지이다. " 고 하는 그녀의 고백에서 참 아름다
움을 찾아 봅니다. "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 지는 것 "
이 " 아름다운을 아름답게 "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조된 대로 의 " 자연의 삶 " 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그분에게서 참된 의미에서의 "미" 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 아름다운 " 은 겉에서 보다 안에서 곧
마음에서, 그것도 "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 지이다. "
고 고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확장을 해서도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가는 사람에게서 나옵
니다. 그 사람은 " 아름다운을 아름답게 " 사는 사
람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꾸밈새없는 아름다움입니다.
(맺음) 오늘날 도회지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그
대부분이 자연을 떠나 삶의 의미를 상실한 것 같습
니다. 왜 현대인은 고독하다고 하나까 ?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떠나서 인간이 만든 세계
에서만 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인간성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초현대건물이 자꾸 세워지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그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매일을 기계처럼 움직
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배해야 할 기계가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있으니 인간은 자연히 고독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람은 사람이 만든 것에서 참
인간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자연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말했듯이 우리는 " 아스팔트 보다는 흙냄새
나는 땅을 밟아야 하겠고 외자보다는 잔디에 앉고
썩은 보다는 새의 노랫소리 미풍의 속삭임을 들어야
합니다. " 깽깽야 주어진 인간성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겹어온 잘못된 불행의 길을 되풀이
하여야 합니다. 자연이 있는 생활조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연을 즐길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한인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자연을 잃어버린 도시는 인간됨을 상실
하는 폐허 " 가 될지 모릅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에는 사람은 만날런지 모르지만 하나
님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자연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에 영광을 볼수 있을것입니다.

저 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음성을 들어보세요..
저 흐르는 시내물을 보고 하나님외듯이 무엇인가
아마보십시오. 저 무성한 나무를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닫힌 입이있을 때는 자연을 찾아 시원함을
찾을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는 자연과 친구가
될것입니다. 살다가 실망할 때는 오늘도 생생하게
살고있는 저 자연을보고 용기를 얻을것입니다.

이는 자연을 통해서 오늘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다시살게해 주시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옛날 이스라엘민족과
같이 우리도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끝

" 마코마 조선업계 환경기 "

마코마 보트빌딩은 6억달러 상당의 합정
건조주문에 이어 또다시 해군으로부터 잠
수함, 정찰용 함정등 1억4천6백만달러에
체결하여 호경기를 맞고있다.

마코마 다운타운 개발

마코마 다운타운 브로드웨이 지역의 고립
지대 개발을 위한 자금 6백50만달러를 연방
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지원액의 내용은 상가 개발과 비즈니스를
위한 개인 용 자금 5백만달러, 시당국
이 비운 개발을 위해 쓸수 있도록 1백만달러
그리고 50만달러는 공중을 위한 시설 자금
이다.

" 갖다 버릴 곳도 없는 "

박 암 (수상집 율해)

이 세상에서 제일 추하고, 더럽고, 처지
곤란한 것이 있으니 그는 곧 남을 미워
하는 사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네 버리는 쓰레기조차도 쓸곳이 있고,
갖다 버릴 곳이 있다. 그러나 남을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은 천만가지로 생각을 해
보아도 쓸모가 없고, 천만번 생각해 보
아도 갖다 버리는 데 적당한 곳조차 없다.

얼 굴

이은경

" 파아란 하늘이 보인다 울바리에 심어놓은
빨간 얼매를 보고 싶단 "

있었던 조국의 얼굴들이 비 내리는 씨앗들
에 하늘위에 나뉘었다가는 사라지곤 한다.
그 얼굴 ! 얼굴중에 특히 못밧을 얼굴이
있다.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고 자랑스런
조국의 말임을 잊지 말라고 부락하던 얼굴.
찌그마한 얼굴에 조그만 눈, 조그만 코
큰 입을 갖인 감쪽한 계집아이이다.
지금은 아바가 차 사고 때문에 부업으로 청
국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천국의 구수한 냄새가 코에 스며드는 듯하다.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도록 청국을 만들
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소식 보낸다.
도와주고 살고 뭔가 도움이 될만한 말을 해
주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는다.

안타까운 심정은 이민은 사람이면 누구나가
겪었을 심정이다.

단풍뉘무익은 점점더 빨강게 물이 들어가고
있다. 솔나무의 향기도 짙어져만 간다.

가을이다
창문을 때리는 빗 방울은 여전히 그칠줄 모
르고 라디오의 음악도 지칠줄 모르는데
잠시간 가을과 조국을 생각하며 큰 입을
가진 감쪽한 계집아이에게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이 미치기를 두손모아 기도 드린다.

노순열 부동산



EQUITY EXCHANGE



부동산 거래의 성패는 AGENT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택. 상가. 아파트. 매매
 용자알선. 주택거래 강령.
 주정부인가 GENERAL CONTRACTOR
 (건축허가. 신.건축공사 시공)

전화: (206) 763-0341(사무실)
 542-7977(집)

영업안내

- 지붕수리
- 울타리공사
- 호마이가
- 롱코리트
- 정원정비
- 타이루공사
- 카비넬
- 배관.전기.



*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야 771-8019

KIMS, REMODELING SERVICE.
 김, 목공소
 3825 - 191st. S.W.
 LYNNWOOD, WA. 98036

10 월의 재정 소식

9월 19 일-10월 18 일(순위는 납입순)

한인회비	특별기금	건축기금	한글학교기금
132. 강동원 \$ 15000	김길량 \$ 80.00	41. 장부관 \$100.00	김대위 \$ 35.00
133. Robert B. \$ 20.00	계 \$ 80.00	42. 강동원 \$20.00	김순복 \$ 25.00
		43. Robert B. \$50.00	계 \$ 55.00
134. 김이오 \$ 15.00		계 \$ 170.00	
135. 공창영 \$ 15.00			
136. 이재관 \$ 10.00			
137. 자성원 \$ 15.00			
138. 차영호 \$ 15.00			
139. 한만섭 \$ 15.00			
계 \$ 120.00			
한인회비 : 월중 \$ 120.00	년중 \$ 2,290.00	합계 2,410.00 (총 139 명)	
건축기금 : 월중 \$ 170.00	년중 \$ 2,264.31	합계 2,434.31 (총 43 명)	

- 한인회 발전을 위해 각종 기금 보내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인회비, 건축기금, 특별기금, 한글학교 기부금, 한인회보 광고 찬조금, 한인회 행사시 현품 기증등 희사품에 대한 영수증 발송 준비가 되었습니다. 발송 예정일은 10월 중순이며 이사를 하신분은 발송 이전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67-7934)
- 한인회비는 개인10.00, 가족당15.00 (1 년) 입니다. 우리, 같은 한국인으로서 한인회를 외면하며 무관심하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고달프고 바쁜 이민 생활속에서나마 잠시 한인교포들간의 따뜻한 정을 느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한인회보는 매월 1,500부 발송되고 있습니다. 벌크 메일은 주소가 변경된 곳으로 우송되지 않으며 되돌아 오기도 않습니다. 1부의 회보라도 허실되지 않도록 주소변경을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電子部品 첫 선

9월29~30일 展示會 盛況이뤄

서부 5개 산업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한국전자부품 씨애플 전시회가 9월 29일 워싱턴 프라자호텔 웨스트룸에서 장운걸 총영사를 비롯 존 더빙씨애플 상의부회장 그렉 함 헌터 브루인전자 부사장 홍승민 무역관장 상무성 관계자등 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막되었다.

한국전자공업 진흥회(회장 김완희)가 주관하여 한국 전자부품 생산업체(50개 회사)가 참가한 등 전시회는 국산전자 부품의 대미수출 개척 및 확대 원자재구입선 발굴등의 목적으로 산호세, 포트랜드에 이어 씨애플에서 갖는 전시회는 30일까지 2일동안 35개 종류의 국산 전자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는 보잉을 비롯 인근 전자계측기및 컴퓨터 제작업체에 수출을 목표로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개막 첫날에는 즉석에서 3만달러의 주문을 받는 등 업체간에 대미수출에 밝은 전망이 보인다고 했다.

" 81년부터 미주지역 고포 참가추진 "

대한체육회 재미지부 (회장 김제호)는 81년부터 전미주 지역의 고포가 출전하는 태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10월 15일 제 16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재미선수단 임원들은 조상호 체육부장을 방문 전미주 체육대회 개최 승인 및 제반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같이 대회 개최 승인을 요청받은 대한체육회는 전미주 고민체육대회가 갖는 의의가 큰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찬성 세부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조희장을 방문한 선수단 임원들은 재미체육회가 로스엔젤레스에 한인체육회관 건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84년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에 대비 한국선수들의 전지훈련 대회기간중 한국대표팀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 응원에 관한 문제등을 교환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2세선수들이 자주 모국을 방문 각종 경기에 출전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상사지사 협의회 새회장 박설봉씨

최근 미서북부 한국상사 자사협회가 발족했다. 서북미에 진출한 한국 17개상사의 현지 책임자들로 구성된 동협회는 초대회장에 박설봉 (남양어망 지사장) 씨를 특별고문에 장운걸 씨애플 총영사 고문에 홍승민 씨애플 무역관장을 추대했다.

다른 " 잡 " 가져 기소됐던

고포 김동협목사에 무죄

목사의 신분으로 영주권을 받은후 파르타임으로 다른 일한것이 이민법 위반이라고 이민국에 기소되었던 김동협목사(한인복음교회)가 이민국 담당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최종 통고받았다.

이민국은 김목사의 과거가 조사대상이었지만 현재 한인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그직에 충실히 봉사하고 있기때문에 더이상 이상건을 지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작년에 2회에걸친 청문회가 열렸으며 김목사의 주장을 고민 이현기, 전계상씨등 원토고민들도 투쟁을 함께 했었다.

법정부쟁 2년만에 개가를 올린 이사건은 71년 목사의 신분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며 그후 73년 10월부터 76년 6월까지 정원사 또는 제니어로 파르타임 혹은 폴타임으로 일한것이 이민국의 조사대상이 되었었다 당시 이사건은 김목사의 주변의 고포가 고발했다고 해서 큰 물의와함께 고포사회의 관심사가 되어왔었다.

" 씨애플 장로교회 김상구목사 위임 "

씨애플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구)는 9월 28일 김상구목사 위임식, 김명활 김명수 장로 장립, 김간난권사 취임 및 김춘영집사 안수식을 갖었다.

장로및집사 취임식

● 마르마 한인연합장로교회는 10월 1일옥민권 전로사퇴 목사 안수식겸 부목사 취임식을 가졌다.

● 포트랜드 중앙교회 (목사 정덕환)는 10월 12일 진병기장로 및 김인순권사 취임식. 문명직. 박정택. 수영훈. 이철웅. 이현환집사 안수식을 가졌다.

중앙장로교회 이전

씨애플 중앙장로교회는 19일 웨스트시애플18가와 Cambridge St. 네거리에 있는 St. James 루머교로 이전했다.

會長任期 1年으로

씨애플-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임기 1번
씨애플-워싱턴주 한인회는 9월 19일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2년으로 되어있는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시켰으며 자동직 이사 11명을 보강 전임회장이 자동직의사에 임명되도록 하는 글자의 회칙을 개정 통과 시켰다. 회장의 임기는 1번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중임할수 없도록 지난해 개정안것을 다시 1년을 임기로 하되 한번 더 중임할수 있도록 1년만에 옛 회칙대로 개정안 것이나.

산부인과 전문의 로 명재 M.D. (ROE, MYONG J.)

Diplomate, American Board of
Obstetrics - Gynecology

Fellow,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 Gynecologists

일반산부인과 · 불임증 전문

※ 임신중절은 하지 않습니다.

월. 화. 금. 일

201 N. DIVISION ST
AUBURN, WA 98002
< 833 ~ 2580 >

Appointment 에
의해서만
보실수 있습니다
9.30 A.M.
5.30 P.M.

수. 일. 토. 요. 일

1711 324th Pl.
Federal Way, WA. 98003
< 927-8440 >



여행의 상담자

김의여행사



대표 김창성



모국방문 특별할인

귀국선물 안내 공증 업무 취급



각종사업투자, 주택매매알선

BUS: (206) 624-2227 / 624-2228

RES: (206) 364-9934

Kim's Travel Service
ROOM 619 603 STEWART LLOYD BLDG.
SEATTLE, WASHINGTON 98101

옥상점 사무실 수리전문

저렴한 비용으로
책임봉사 합니다



- 윗타리 및 지붕개량
- 캐비넷 일질
- 내부수리
- 구조변경

윤목수

☎ 623-1323

※ 목수 경력 20년

편 집 후 기

낙엽이 한입 두입 떨어지는 것을 보니
고국의 생각이 저절로 난다.
지면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전임자인 미세스 고로부터 업무를
인수한 신입사원 김분환입니다.
우선 한인회에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애를 쓰시던 미세스 고에게 감사함을 드
리며 앞으로 고민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대하고 저합니다.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업무가 잘 되시
길 바랍니다.

김분환

정문언 종합 보험



AUTO · LIFE
BOAT · TRUCK · FIRE
HOME OWNERS & COMMERCIAL

GOOD STUDENT DISCOUNT - LOW RATES FOR
CAREFUL DRIVERS - NON SMOKERS SAVE ON
YOUR AUTO, FIRE AND LIFE INSURANCE

(Bus) (206) 523-9111

(Res) (206) 523-8944

Moon Choung Agency
10059 Aurora N.
Seattle, WA 98133



스튜디오꽃집
the flower studio



- 결혼 · 약혼식 꽃
- 실내용화초
- 각종 축하용화분
- 장례식꽃등



— 교포에게 특별봉사 —

★ 전화만주시면 즉시 배달해 드립니다.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 BUS : 325-5032 RES : 367-1534

"본점"
 Woong Ki Baik
 8512 20th N.E.
 Seattle, Wash. 98115
 206-525-8334

그랜드 식품

Dan & Jean Kim
 5405 196th S.W.
 Lynnwood, Wash. 98036
 206-771-7226

저렴한 가격 · 신선한 식품 · 친절한 봉사



나 날이 발전하는 시에들 코면 여러분 속에. 저의 그랜드 식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맛을 생생껏 전해드려주는 있는 최선에 방법을 다하려고 오늘도 온정성을 다 하려고 하옵니다. 아를러,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常



감사 하옵니다.
 결비와 물고기는 미리 주문해 주세요.
 "단체 주문도 환영 합니다."

인삼코너

情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1725 S.W. Roxbury St. Seattle, Wa 98106
 767-793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HA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

AA 98006